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윤 미**

김 형 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노화불안을 매개로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자본은 매개변인인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571, p<.001$). 즉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사회자본은 종속변인인 재취업욕구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25, p<.001$).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재취업욕구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3단계에서는 사회자본은 재취업욕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노화불안은 재취업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eta=.416, p<.001$). 분석결과,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에 노화불안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4.936, p<.001$).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노화불안에 대한 관리와 중재가 중요하며, 또한 사회자본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재취업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중장년층,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

I. 서론

2022년 우리나라의 평균기대수명은 80.5세이고, 최근 발표된 2019년 건강수명은 73.1세로 나타났다(통계청). 또한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퇴직연령이 49.4세(2020년)로 나타나 중장년층은 50세도 채 안되어 노동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한편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16.6%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고령사회에서 부족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나는 삶의 기간에 대한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취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인구고령화 이전은 30-30-20패러다임에 의해 30년 교육받고 30년 일하고 20년 노후의 삶을 영위하였으나, 고령사회에서는 「30-30-40」의 은퇴후 노후의 삶의 기간이 2배이상 늘어나고 있다(이수정 외 4, 2021). Sadler(2020)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애의 중간단계인 40대에서 70대 중후반 까지를 제3연령기로 연령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전환했다. 그는 제3연령기를 2차 성장의 시기로 강조하며 일과 여가활동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시기로 정의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우리사회의 중장년층은 늘어나는 삶의 기간에 대한 준비없이 노동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장년기가 속한 연령대는 재취업에 대해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역할과 지위를 유지하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이병호, 2009; 양혜진, 2016). 활동이론 측면에서도 인간이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고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게 될 경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유의하게 개선된다(이재풍·유순덕, 2017). 이러한 의미에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미의 재취업욕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간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통해 경제적 독립은 물론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욕구이다(송성이, 2009). 중장년층은 68.6%가 여전히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통해 소득의 보장과 성취, 건강유지, 여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이성진, 2016).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 그동안 해보고 싶은 꿈의 실현과정,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나만의 일, 직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건강이 허락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윤미, 2022).

이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욕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계수단인 소득은 노동을 통해 얻게 되며 직업과 노동은 사회유지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된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정체감을 고취시키는 수단이 된다. 더구나 오늘날의 중장년층은 오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경험 등으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은 이미 축적한 네트워크 등의 관계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 생활태도를 유지하고자 하며, 중장년층은 네트워크, 사회참여, 신뢰 등의 사회자본을 물적자본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있다(강경란 외, 2017).

재취업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활동 수준이나 네트워크의 규모, 규범 준수 등의 사회자본이 양이 많거나 활발할수록 성공적 노후수준이 증가하고 사회자본은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박신영·어용숙, 2018; 김정화·김남숙, 2019; 이한석, 2019; 윤미, 2021). 이런 측면에서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은 재취업욕구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중장년기의 발달주기상 특징을 살펴보면 인생의 성공과 하강을 경험하며 사회 역할의 축소 등으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시기이다.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적 요인에서 오는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역할상실 등의 문제로 인해 신체적인 노화와 겹쳐 우울 등을 경험하며 불안이 가중되

는 시기이다. 사회생활을 통해 획득한 전문성은 퇴직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박현숙·임정도, 2012). 퇴직을 전후하여 중장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재취업활동 실패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녕감의 제고는 중요하다(윤미, 2021).

그러나 중장년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서 나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불안을 가중시켜 삶의 저하는 물론이고 주관적인 안녕감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이수림·조성호, 2007). 노화불안이 높으면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남석인 외, 2015). 이는 중장년기에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인간발달 주기상에서도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장년층 재취업관련 선행연구는 퇴직 이후나 은퇴기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력단절 여성,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및 소득을 중심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분석, 사회적 관계망, 재취업의지 및 재취업의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양혜진, 2016; 신연하·이동명, 2017; 강경란, 2018; 염인숙, 2019; 이보라 외3, 2019; 이병호, 2013; 이한석, 2019; 윤미, 2021; 이도식·장형식, 2023). 실질적으로 한참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거나 그 사이에서 노화불안을 매개로 하여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삶의 기간에 대한 생애 재설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년층이 보유한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중장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인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실천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1990년대 이후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연계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공공재, 미시적, 내향성 측면으로 다양하게 정의한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고, 사회자본을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사회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이라 하였다(Lin, 2001).

국내연구에서 사회자본은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공·사적 신뢰, 호혜성규범(엄미아, 2012), 네트워크와 신뢰(강경란·박철우, 2017),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이한석, 2019) 등으로 정의

하였다. 신뢰는 사회적으로 범용되는 계약서, 차용증서 등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타인에게 제공한 자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고, 사회규범은 사회 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간 공유된 가치나 규칙, 준법수준, 공공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박창기 외, 2018). 또한 사회참여는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비공식적 수준에서의 참여 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정치,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인적행위의 참여를 의미하고, 네트워크는 사회적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된 사회로의 연결과 상호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은 개인이 지닌 사회적 역량이자 가능성이며, 사회자본의 양이 많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삶에서의 당면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은경·김선희 2020; 장영은·김신열, 2015). 또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자본이 구성된다(진창남·신경수, 2017). 이에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참여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생애주기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 즉 재취업욕구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 후 사회적 활동과 접촉이 감소하게 되어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획득되는 다양한 자극이나 긍정적 영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이정옥, 2021).

따라서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의 양에 따라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자원을 동원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위 획득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더 좋은 직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을터, 2016). 또한 사회자본인 사회참여는 개인에게 활동을 주고 강한 연대의식으로 지역사회의 공통된 사회문제나 관심사를 공유해나가며 세대통합과 소외계층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참여로 형성된 사회관계망은 사람과의 교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 지지를 한다(김수린 외 2, 2018; 장유미, 2011).

2. 노화불안

중장년기는 전 생애 중 최고의 절정기에 달함과 동시에 하강과 은퇴를 경험하며, 노년으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중장년기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양육부담도 줄어드는 시기이다. 반면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겪으며, 입시 및 진로문제 등으로 자녀 세대와 갈등이 커지고 은퇴로 경제적인 재적응을 해야 하는 등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기이다(왕석순·서병순, 1995). 무엇보다 중장년층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세대로서 줄어드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비해 가족 부양과 노후준비로 인한 이중의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염인숙, 2019).

중장년기의 발달과업 자체는 위기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Levinson, 1986). 한편 현대사회에서 중장년층은 이전세대 보다는 교육과 전문지식, 경험 등의 측면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것으

로 보여진다. 그러나 노화현상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지만 중장년기에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Kruger, 1994), 무엇보다도 은퇴를 앞둔 시점의 중장년층에서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Lynch, 2000). 노화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늙었다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나, 노화불안은 현재보다는 미래 중심으로 예측되는 우려에 대한 잠재적 불안이다(Tails et al., 1991).

따라서 노화불안은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적인 불안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힘의 상실과 같은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화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변화 모두를 의미하나 젊음과 관련된 특성에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된다(김욱, 2011). 그러나 중장년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에 따라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며 건강하게 접근해 나간다면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한참 일할 나이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중장년층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또한 재취업욕구를 충족할 만큼 일자리의 양과 질은 충분하지 않으며 재취업지원 시스템도 부족하다(강순희, 2016). 더구나 코로나19로 고용문제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박태정·홍상욱, 2020). 따라서 중장년기에 가장 증폭되는 심리기제인 노화불안이 재취업욕구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중장년층의 재취업욕구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일정한 직업을 구해 직장에 나간다는 의미에서 “취업”과 같은 의미이나, 노동시장에 재진입 한다는 의미에서 “재취업”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취업욕구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직업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l, h, back, 2016),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일을 하고 싶은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의 정도로 재취업에 대한 만족과 기대(황주희 외 1, 2021),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이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일을 통해 삶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이보라 외 3, 2019), 여가실현, 여가선용, 사회적 지위 획득,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한다(염인숙, 2019).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개인적으로 수입을 확보할수 있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생산인력을 확보하고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층으로 하락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이한석·이영균, 2019). 퇴직한 중장년층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재정부담을 줄일수 있다(박경하, 2011).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역할과 지위를 유지하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욕구차원에서 중요하다(이병호, 2009; 양혜진, 2016).

중장년층은 재취업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 그동안 해보고 싶은 꿈의 실현과정,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나만의 일, 직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건강이 허락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욕구(윤미, 2022)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중장년층은 재취업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은퇴나 퇴직기의 중장년층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중장년층은 퇴직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도전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역할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적인 요인에서 오는 사회적 기능상실과 수입의 감소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만큼 중장년층의 퇴직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상실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며,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퇴직자들은 신체적인 노화와 겹쳐 우울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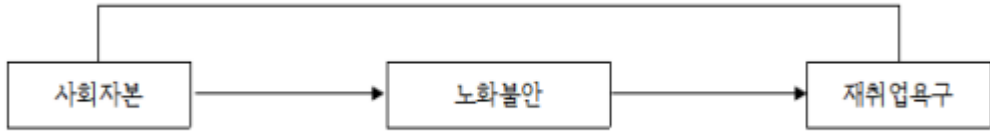
특히 A. Maslow의 주장처럼 재취업욕구는 자기실현을 위한 성장동기가 될 것이다. 즉 재취업욕구는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자기실현, 사회적인정, 여가선용을 통해 삶의 보람과 가치를 가지는 등 비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소득은 노동을 통해 획득되고, 그러한 직업과 노동은 사회유지의 중요한 원천이 되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정체감을 성취시키는 수단이 된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경제적 독립은 물론 자아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은 당연한 욕구일 것이다(송성이, 2009).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유사연구로 사회자본이 재취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이한석, 2019; 윤미, 2021). 특히 퇴직을 전후하여 중장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재취업활동 실패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녕감의 제고는 중요하다(윤미, 2021). 개인의 사회활동 수준이나 네트워크의 규모, 규범 준수 등이 많거나 활발할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증가한다(박신영·어용숙, 2018; 김정화·김남숙, 2019; 전상담, 2019). 다만, 사회자본과 성공적 노화와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주로 65세 이상이거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0세~65세 사이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살펴보려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노화불안을 매개하여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중장년층은 사회자본은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신영·어용숙, 2018; 김정화·김남숙, 2018; 이한석, 2018; 윤미, 2021). 반면 중장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인 노화불안은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저하는 물론 주관적인 안녕감에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이수림·조성호, 2007; 남석인 외, 2015; 윤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증폭되는 노화불안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¹⁾



[그림1] 연구모형

- 가설1.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노화불안을 매개로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비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자본과 노화불안을 매개로 재취업욕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의 중장년층은 취업중이거나 현재 실업중이지만 취업경험이 있는 40세~65세까지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시 취업 경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남성(120명)과 여성(80명), 연령은 연령대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연령구간을 40대(80명), 50대(80명), 60대(40명)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200명을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Coleman(1998)과 Putnam(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창남·심경수(2017), 이한석(2019)이 사용한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은 사회규범,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했다. 신뢰에 대한 문항은 ‘가족을 신뢰한다.’ 등 6개 문항, 사회규범에 대한 문항은 ‘공공법규 등 법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등 6개 문항, 사회참여에 대한 문항은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축제, 음악회 등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등 6개 문항, 네트워크에 대한 문항은 ‘평소에 새로운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Likert 1점에서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한석(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은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1) 2023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노화불안 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를 김옥(2010)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인 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정의하였다. 문항은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나는 늙어 보일까 봐 두려워 해 본적이 없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걱정한다.',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Likert 1점에서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옥(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노화불안 신뢰도는 Cronbach's α =.78로 나타났다.

3) 재취업욕구

재취업욕구는 Blenkner(1969)가 개발한 재취업욕구 척도를 송성이(2009)와 염인숙(2019)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 여가선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실현에 대한 문항은 '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 등의 4문항, 여가선용에 대한 문항은 '자유롭게 시간 활용이 가능한 일이 좋다' 등의 4문항, 경제적자립에 대한 문항은 '가정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일을 할 것이다' 등의 5문항, 사회적지위에 대한 문항은 '사회적 명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0문항을 구성하였다. Likert 1점에서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취업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병호의 연구(2013)에서 Cronbach's α =.84로 나왔으며, 본 연구의 재취업욕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86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5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사이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의 3단계 위계적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20명(60%), 여자 80명(40%)이었으며, 연령은 40대 40명(40%), 50대 80명(40%), 60대이상 40명(20%)이다. 학력은 고졸이하 40명(20%), 대졸 140명(70%), 대학원 이상 20명(10%)이었고, 부양가족수는 없음이 15명(7.5%), 2명이하 92명(46%), 3명이상 93명(46.5%)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9명(4.5%), 200~400만원 미만이 52명(26.0%), 400~600만원 미만이 86명(43%), 600만원 이상이 53명(26.5%)이다. 현재 취업중이 159명(79.5%), 과거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업중 41명(20.5)이었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0)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20	60.0
	여자	80	40.0
연령	40대	80	40.0
	50대	80	40.0
	60대	40	20.0
학력	고졸 이하	40	20.0
	대졸	140	70.0
	대학원 이상	20	10.0
부양가족수	없음	15	7.5
	2명 이하	92	46.0
	3명 이상	93	46.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	4.5
	200~400만원 미만	52	26.0
	400~600만원 미만	86	43.0
	600만원 이상	53	26.5
취업상태	취업중	159	79.5
	취업경험유, 현재 실업중	41	20.5

2. 중장년층의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의 정도

각 변수의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세 변인 중 재취업욕구가 5점 만점에 평균 3.70±0.4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자본은 평균 3.24±0.48이었고, 노화불안은 평균

3.19±0.45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중에서는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은 자기실현(3.94)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적자립(3.73), 여가선용(3.71), 사회적지위(3.3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은 사회규범(3.47), 신뢰(3.43), 네트워크(3.35), 사회참여(2.80)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West et al, 1995)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8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을 위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표2〉 주요변수 간 기술통계

(n=200)

변수	Mean	SD	왜도	첨도
1. 사회자본	3.24	.48	.01	.21
1-1. 신뢰	3.43	.54	-.45	.34
1-2. 사회규범	3.47	.59	-.43	.30
1-3. 사회참여	2.80	.81	.25	-.45
1-4. 네트워크	3.35	.65	-.23	-.06
2. 노화불안	3.19	.41	.65	-.61
3. 재취업욕구	3.70	.44	-.13	-.38
3-1. 자기실현	3.94	.54	-.48	.35
3-2. 사회적지위	3.38	.68	-.21	-.20
3-3. 경제적자립	3.73	.64	-.50	.21
3-4. 여가선용	3.71	.53	-.31	-.07

3. 중장년층의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자본과 노화불안($r=.57,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화불안은 재취업욕구($r=.47,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재취업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재취업욕구($r=.32,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재취업욕구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1-1	1-2	1-3	1-4	2	3	3-1	3-2	3-3	3-4
1. 사회자본	1										
1-1. 신뢰	.64**	1									
1-2. 사회규범	.66**	.50**	1								
1-3. 사회참여	.82**	.24**	.32**	1							
1-4. 네트워크	.76**	.32**	.26**	.56**	1						
2. 노화불안	.57**	.35**	.31**	.51**	.45**	1					
3. 재취업욕구	.32**	.23**	.22**	.26**	.24**	.47**	1				
3-1. 자기실현	.29**	.27**	.22**	.17*	.23**	.37**	.83**	1			
3-2. 사회적지위	.33**	.16*	.16*	.36**	.20**	.42**	.78**	.52**	1		
3-3. 경제적자립	.12	.09	.13	.06	.09	.27**	.72**	.50**	.35**	1	
3-4. 여가선용	.20**	.16*	.11	.13	.20**	.32**	.59**	.39**	.35**	.20**	1

*p<.05, **p<.01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r=.23, p<.01$), 사회규범($r=.22, p<.01$), 사회참여($r=.26, p<.01$), 네트워크($r=.24, p<.01$)는 재취업욕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 중 자기실현과 사회적지위는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경제적자립은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선용은 신뢰($r=.16, p<.01$)와 네트워크($r=.20, p<.01$)와는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규범과 사회참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은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들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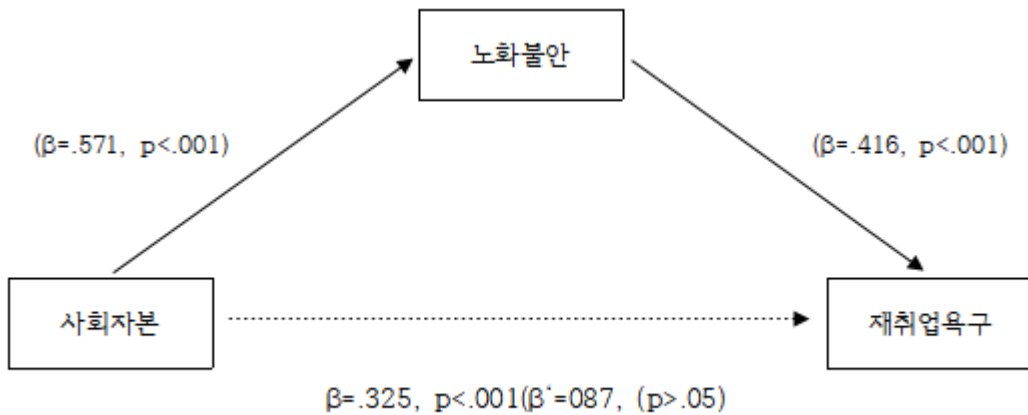
4. 중장년층의 사회자본과 재취업 욕구 간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중장년층의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 Baron과 Kenny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고, 이를 상호 관계적 측면의 그림형태로 나타내면 [그림 2]과 같다.

〈표 4〉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p)	p	R ² (adj.R)	F
1단계 (독립→매개)	사회자본→ 노화불안	.484	.058	.571	9,7967***	.000	.326 (.323)	95.969***
2단계 (독립→종속)	사회자본→ 재취업욕구	.299	.062	.325	4,832***	.000	.105 (.101)	23.352***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사회자본→ 재취업욕구	.080	.071	.087	1,135	.258	.222 (.214)	28.147***
	노화불안→ 재취업욕구	.453	.074	.416	5,438***	.001		
사회자본→노화불안→재취업욕구		Sobel test: Z=(4.936***, p<.001)						

**p<.001



〈그림 2〉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중장년층의 노화불안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95.969, p<.001), 2단계(F=23.352, p<.001), 3단계(F=28.14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는 32.6%(수정된 R제곱은 32.3%), 2단계에서 10.5%(수정된 R제곱 10.1%), 3단계에서는 22.2%(수정된 R제곱 21.4%)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지수가 1.800로 기준 값(2)에 근사 값을 보여 잔차독립성 가정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tolerance)는 .67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485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1단계에서는 사회자본은 노화불안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다(β=.571, p<.001).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영향력을 살펴보는 2단계는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325, p<.001$). 이는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재취업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투입하여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3단계에서는 사회자본은 재취업욕구($p>.05$)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화불안($\beta=.416, p<.001$)은 재취업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의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여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한 바, 절대값이 1.96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사이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4.936, p<.001$). 따라서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노화불안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이 노화불안을 매개로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여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삶의 질을 돕기 위한 실천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변수 간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재취업욕구가 5점 만점에 평균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자본(3.24), 노화불안(3.1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재취업욕구를 분석한 이도형·장형심(2023)의 재취업욕구(3.5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은 김태호(2014)의 사회자본(3.26)과 이정옥(2021)의 사회자본(3.3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화불안은 비슷한 시기의 연구된 이정옥(2021)의 노화불안(2.83)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중장년층은 자기실현, 여가선용,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 등의 재취업욕구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노화불안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높은 노화불안은 비슷한 시기에 분석된 이정옥(2021) 연구에서 중장년층이 거의 퇴직 또는 퇴직기의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 중인 40세~65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집단 보다는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에서 50대의 일반인 집단에서 노화불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는 상호 간의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활동이 축소되는 은퇴기 또는 퇴직자, 노년층 대상의 사회참여 활동,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여 노화불안을 완화시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강향미, 2015; 서대석, 2018)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유사 연구로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재취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윤미, 2021)와는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50대에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김순이·이정인, 2007; 이유리, 2009), 노화불안이 현재보다는 미래 중심적인 개

념으로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김옥, 2011).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은 취업중인 상태가 79.5%로 경제활동에 참여중에 있으며, 연령대가 40세~65세 사이의 중장년층이라는 점에서 한참 일할 시기의 높은 사회자본이 오히려 노화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높은 노화불안은 재취업욕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전세대 보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연장된 현대사회에서 중장년층의 높은 사회자본은 노화불안은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재취업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경란 외, 2017; 이한숙, 2018)와 맥락을 같이 한다. 중장년층이 그동안 보유하고 축적한 사회자본이 퇴직 등으로 소멸되지 않고 재취업욕구를 실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취업욕구를 파악하여, 재취업욕구 수준에 맞는 재취업관련 법령 또는 제도,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노화불안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노화불안이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며,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재취업욕구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사회자본이 재취업욕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노화불안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장년층의 높은 사회자본은 노화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장년층의 높아진 노화불안은 재취업욕구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에 비해 초고령사회에서 준비없이 맞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중장년층의 사회자본, 노화불안, 재취업욕구의 정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자본과 재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중장년기에 가장 증폭되는 심리기제인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초고령사회에서 생애 재설계를 위해 중장년층의 재취업욕구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장년층은 청년층과는 달리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된 직장을 떠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중장년층은 사회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다. 특히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점에서 중장년층 자신들이 오랜 동안 쌓아올린 사회참여,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은 재취업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중장년기는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화불안은 사전에 예측되는 미래의 잠재적인 불안으로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증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중장년층은 소득수준, 학력, 일에 대한 전문성, 경제적자립도 등에 따라 길어진 기간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사회자본을 활용 또는 연계하여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사회적지위 유지, 사회 봉사, 여가선용 등의 재취업욕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사회의 취업난은 청년층, 중장년층 등 모든 계층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로서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는 나이 제한과 노화불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도가 약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에서

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재취업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효과분석은 시의적절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장년층의 재취업 일자리는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층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재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교육시스템 등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기의 가장 높게 나타나는 노화불안은 생활스트레스는 물론 삶의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까지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화불안이 현재보다는 미래 중심으로 예측되는 우려에 대한 잠재적 불안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심리기제라는 측면에서 중장년층이 재취업욕구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화불안을 관리하고 증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상담 등의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관련 연구분야에서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생애주기의 발달관점에서 중장년층이 오랫동안 축적한 사회자본과 중장년기의 대표적이고 가장 높게 나타나는 노화불안을 매개로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과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다소 적어 전체 중장년층의 재취업욕구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중장년층의 심리내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란(2018). 베이비붐 세대의 창·재취업 의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경란·박철우(201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177-189.
- 강순희(2016).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취업진로연구」 6(3):117-140.
- 김수린·김주현·정순돌(2018). 고령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고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지」 73(2):9-47.
- 김신미·김순이(2008). 중년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대한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281-291.
- 김육(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27-56.
- 김육(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7:71-94.
- 김종향(2011). 사회적관계망요인이 고령자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 8(2):47-70.
- 김태호(2014).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자본이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화·김남숙(2019).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1):129
- 김형빈·이진석(2011).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적자본의 형성. 「지방정부연구」 14(4):129-149
- 남석인·남석인·김준표·이다지·신지민(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70:169-195.
- 박경하(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사회복지연구」 가을:291-327.
- 박신영·어용숙(2018).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사회적자본 및 생활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0(1):98-108.
- 박현숙·임정도(2012).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48-260.
- 박창기·김창완(2018). 소상공인의 사회적자본이 자기효능감, 창업의지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3(2):1-28.
- 송성이(2009). 준·고령자의 직업복귀 유형별 재취업욕구와 미래시간전망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연하·이동명(201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 양혜진(2016). 대구광역시 준고령자의 재취업결정 요인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미아(2012). 사회적자본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인숙(2019). 중고령자의 개인적특성과 노후준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 30(4):175-195.
- 왕석순·서병숙(1995). 중년기 적응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노년학」 15(1):17-31.
- 윤미(202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2):53-97(21)
- 윤미(202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한국심리유형학회」 22(1):1-23
- 윤미(2022). 중장년층의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6(3):281-305
- 월리엄 새들러(2020). 「서드 에이지, 마은 이후 30년」, 출판: 사이
- 이도식·장형심(2023). 중장년 재취업희망자의 자아존중감과 재취업욕구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 이병호(2013). 중·고령실업자의 재취업욕구가 진로경로개척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송수진·지수인·강정훈(201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 구. 「인간발달연구」, 26(1):177-199.
- 이성진(2016). 퇴직후 재취업과 사회참여 활동의지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7(6):931-946.
- 이수림·조성호(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13(3):65-87.
- 이수정·양정승·송기원·김윤정(2020). 중장년층 고용연계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은경·김선희(2020).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자본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31(1):281-295.
- 이정옥(2021). 베이비부머세대 전현직공무원의 노화불안의 성공노화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석사학위논문.
- 이재풍·유순덕(20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직무만족이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4(2):77
- 이한석(2019). 신중년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이 은퇴후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한석·이영균(2019). 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33-40.
- 장영은·김신열(2015).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스트레스. 「인문사회21」 6(3):441
- 장유미(2011). 노인일자리 사업참여가 사회적자본 변화에 미치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261-289.
- 진창남·신경수(2017).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와 사회적관계 연구. 「인문사회21」 8(3).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tat.go.kr> (검색일: 2022.12.26.)
- 황주희·강순희(2021). 신중년 구직자의 사회적지지가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7):145-154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Richardson J.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Pres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tructure and Action, London/New York: Cambridge Press.
- Levinson, R. & Forkman, S. (1978).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 (Kruger, 1994)
- Lynch, S.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Tallis, F. Eysenk, K. Mathews. (1991). The role of temporal perspective and ego-relevance in the activation of worry struc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909-915

윤미(尹美):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상담심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심리치료, 상담심리, 가족상담, 성 심리상담, 행정학 등이다(blue1017@dau.ac.kr).

김형빈(金亨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육혁신원장과 기초교양대학장을 역임하시고, 의료상담심리학과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재무행정, 지방의회, 지방분권, 도시정책, 의료상담심리학 등이다. 주요 논문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2021),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사상(2021),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2021) 등이다(hbkim@dau.ac.kr).

〈논문접수일: 2024. 1. 15 / 심사개시일: 2024. 1. 15 / 심사완료일: 2024. 2. 13〉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Reemployment Needs of Middle-aged Peopl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ging anxiety

Yun, Mi
Kim, Hyung Bin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the middle-aged on the desire for re-employment through aging anxiety b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of Baron and Kenny (1986).

In the first stag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aging anxiety, a mediating variable, was positively (+) significant ($\beta=.571$, $p<.001$).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ocial capital, the higher the aging anxiety. In the second stage, social capital was positively (+) significant in the dependent variable, the desire for re-employment ($\beta=.325$, $p<.001$). The higher the social capital, the higher the desire for re-employment. In the third stage, which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by simultaneously inputting independent and parameters, social capita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esire for re-employment, but aging anxie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sire for re-employment ($\beta=.416$, $p<.00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ging anxiety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between social capital and re-employment need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Sobel test tes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4.936$,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nagement and intervention of aging anxiety in the middle and old age are importan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practical ways to realize the desire for re-employ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social capital.

Key Words: Middle-aged, Social capital, Aging anxiety, Desire for reemployment

